연변과 더불어 60성상

허상림 편저



민족출판사

需要全本请访问 www.ertongbook.com

연변과 더불어 60성상

허상림 편저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与延边同舟共济60年/许相林编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6. 8
ISBN 7-105-07847-2

Ⅰ. 与… Ⅱ. 许… Ⅲ. 回忆录－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Ⅳ. I25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090165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 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 8月第1版　2006年8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14.5　字数: 455千字
印数: 001－700册　定价: 28.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민족출판사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e56.com.cn
2006년 8월 제1판 2006년 8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지: 14.5 자수: 455천자
인쇄부수: 001~700부 값: 28.00원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머리말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휘황했던 어제날의 력사를 되새기면서 지금 한창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있다. 개혁개방이래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사랑하고 관심하는 많은 지성인들은 일찍부터 여러가지 형식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아름다운 미래를 구상해보면서 적지 않은 우려도 표시했다. 력사는 련속된 흐름이다. 끊어놓아도 안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도 안되며 외곡해서는 더욱 안된다. 연변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려면 지나간 력사를 잘 알아야 한다. 래일은 어제와 오늘의 연장선이다. 오직 자기 민족의 력사를 똑똑히 알 때만이 민족의 현재를 바로 볼수 있고 또 미래도 정확히 예언할수 있다.

조선족이 연변에 정착하여 이 땅을 개간하고 삶의 터전을 닦기 시작한지도 한세기 반이 다 되였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력사를 귀납하여 편찬한 력사책은 없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로선배님들을 모시고 그들의 기억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1945년 8.15광복후의 60년회고록을 펴내기로 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생활을 하던 조선족인민들은 광복을 맞이하여 해방의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올랐고 토지를 분배받아 땅의 주인이 된 희열에 혁명열의가 충천했다. 그 기분, 그 기세에 많은 조선족 열혈청년들은 중국공산당을 따라 용약 민주련군(중국인민해방군)에 가입했고 농민들은 담가대, 젊은 녀성들은 간호원으로 전선후원에 총궐기했다. 이들은 3년남짓한 해방전쟁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승리를 거듭하여 마멸할수 없는 위대한 전공을 세웠다. 연변은 진정 해방전쟁에서의 대후방작용을 착실히 놀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에 큰 기여를 했다.

需要全本请访问 www.ertongbook.com

공화국이 창건된후 조선족인민은 더욱 드높은 혁명적열의로 사회주의건설에 일떠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가운데는 전국에 소문난 김시룡, 최죽송 같은 우수한 농민대표, 려근택, 류창은 같은 자랑스런 귀향지식청년, 리옥금, 황순옥 같은 훌륭한 녀성대표가 있었다. 이런 우수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하여 우리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대가정속에서 선진민족의 대접을 받아왔다. 그러나 길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다. 긴긴 세월을 걸쳐 련달아 진행된 계급투쟁속에서 많은 조선족 간부와 지식인들이 억울한 루명을 썼고 투쟁의 대상으로 옥살이도 했고 《로동개조》의 시련을 겪기도 했다.

연변동북아경제문화교류협회에서는 회고록작성을 위하여 먼저 정리자를 초빙하고 당과 정부기관, 과학기술, 문학예술, 채육운동, 학교교육과 신문출판, 공농업 및 중국인민해방군 등 제 분야의 우수한 인물들중에서 12명 대표인물을 선정했다. 그리고 분공하여 여러차례 구술자를 찾아다니면서 방문하여 록음하고 기록하며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이 책에 등장하는 로동지들의 출생년도는 1917년도부터 1937년 사이로 20년이란 시간간격을 두고있다. 그들가운데는 건강상황이 그닥 좋지 않은 로선배님들도 있는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드디여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이 책 차례의 선후순서는 년령에 따라 배렬하였다.

이 회고록은 앞으로 조선족력사책 편찬에 좋은 사료(史料)로 될것이며 더우기는 오늘의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이 책 출판에 도움을 준 리진영, 김판준, 안금송 등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시한다.

연변동북아경제문화교류협회 회장 허상림

차 례

일생을 조선족의학교육에 몸바쳐
정규창 구술/리은실 정리 ····· 1

향도의 빛발아래
김현대 구술/한금자 정리 ····· 31

《전국3.8 붉은기수》 리옥금
리옥금 구술/허동길 정리 ····· 67

산골의 녀수재
황순옥 구술/남희풍 정리 ····· 91

연극과 함께 울고 웃은 인생사
허동활 구술/서채화 정리 ····· 115

연변과 더불어 60성상
조룡호 구술/남희풍 정리 ····· 157

영웅의 본색
김재만 구술/허동길 정리 ····· 203

방학봉교수와 발해사연구
방학봉 구술/허상림 정리 ····· 255

민족음악사업에 혼신을 바쳐
안국민 구술 / 남희풍 정리 ····· 297

잔디밭에서 키운 꿈
박만복 구술 / 서채화 정리 ····· 339

《귀향지식청년》 벼육종가 류창은고급농예사
류창은 구술 / 허상림 정리 ····· 367

조선족농민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로
박룡호 구술 / 리만수 정리 ····· 415

일생을 조선족의학교육에 몸바쳐

정규창 구술
리은실 정리



배움의 나날에 …

나는 1917년 10월 1일에 조선 평안남도 숙천군 내동리의 농민가정인 광주 정씨네 가문에서 맏이로 태여났다.

할아버지 정학수는 삼대독자였고 아버지 정병일은 4남 3녀, 7남매중 셋째아들이였다. 고조부로부터 할아버지까지 아이들을 공부시키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봉건관념이 있어 자식을 공부시키지 않아 가문에는 할아버지전대에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 없었다. 그저 수걱수걱 농사나 짓고 부모를 모시고 세세대대로 그 산골에서 살았다.

나의 할아버지는 아홉살에 결혼했는데 할머니 김씨는 할아버지보다 아홉살이나 이상이였다. 할머니는 키가 크고 체격도 웅장하여 녀자 혼자 손으로 소처럼 억척스레 집안팎 일을 도맡아하였다.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골 서당에서 공부만 했다. 책을 읽어 세상도리를 많이 알게 된 할아버지는 7남매 자식중 셋째아들인 나의 아버지 정병일에게 어려

서부터 천자문같은 글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뒤받침을 받아 서당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마을 주변에 중학교가 없다보니 더 공부할수 없었다. 게다가 일본놈들이 쳐들어와 조선사람들은 조선글을 마음놓고 배울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가봐 먼곳에 보내여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구지욕이 강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안해와 갓난 맏아들인 나를 집에 남겨두고 가만히 천리타향인 원산중학교로 도망쳐가 시험을 치고 합격되여 중학교를 계속하여 다녔다. 《3.1》독립운동후 원산중학교의 유지인사들은 학생들에게 항일의 씨앗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항일영재들을 길러 독립군에 보냈다.

아버지는 선생님들의 영향밑에 일제를 쳐부시고 쫓아내야만 일제의 예속에서 벗어나 조국을 구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산속에 들어가 독립군에 참가하였다. 그때 독립군은 전화나 무선전통화기 같은 통신기재가 없어 산과 산사이에서 서로 나팔을 불거나 산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적정을 알리거나 명령을 전달하였다. 아버지는 원산중학교 나팔수로부터 독립군의 나팔수로 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나팔수로 된 일이 일본놈들의 귀에 들어갔다. 일본놈들은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여 사처로 싸다녔다. 아버지는 부득불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두만강을 건너 1918년 봄에 룡정에 들어왔다. 룡정에 들어오면 일본놈들의 경계가 많이 늦춰져있을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룡정에도 일본놈의 령사관이 들어앉고 약딱지 기발이 걸려져있고 게다짝을 딸딸 끌고다니는 일본놈들이 득실거릴줄이야 …

(여기 있다간 잡히고말겠다.)

그는 그길로 산을 넘고 령길을 타며 50리를 걸어 연길현 세린하향 수복촌으로 도주하였다. 아버지는 일본놈들의 눈에 걸릴가봐 농사군으로 가장하고 지주네 밭을 세맡아 부쳤다.

그해는 농사가 잘되였던지라 수확이 꽤 괜찮았다.

(부모형제들도 오라고 하면 좋을게 아닌가!)

그는 땅이 넓고 사람이 적은데다 일본놈들의 행패도 조선보다는 퍼

그나 경하니 여기 와서 농사짓는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고향에 편지를 띄웠다. 편지를 받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셋째아들을 찾았다고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여보, 일본놈들의 성화에 여기서 어디 살겠소. 만주국에 가면 땅도 흔하다는데 거기 가서 마음 놓구 농사질 하면서 살기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들은 모두 따라나섰다. 1919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떠났다. 세세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는 심정도 심정이겠지만 갓 시집을 보낸 딸을 셋이나 두고 떠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가슴은 칼로 에이는것 같았다.

겨울을 나고 봄이 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복촌의 한족 추지주와 한지주네 밭을 소작맡았다. 그때 이곳에서는 논을 풀수 있는 밭에 강냉이나 수수를 심었다.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의 고향에 가 벼씨를 가져다 세린하 산골에다 씨앗을 뿌렸다. 《이제 이 산골에도 벼파도가 설레이게 될것이다.》 하고 생각하니 가슴도 따라서 설레이였다.

나는 여섯살부터 6년동안 할아버지에게서 한글을 배웠다. 할아버지는 산골에 서당을 세우고 나와 마을의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천자문을 한글자 한글자 가르쳤다.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

산골 초가삼간에는 글 읽는 소리가 랑랑하였다. 할아버지는 내가 철부지라고 사정을 둔적이 없었다. 조금만 정신을 팔아도 회초리로 종아리를 쳤다.

할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덕분에 나는 열두살전에 벌써 천자문을 다 익혔고 한문 련구와 소학까지 적지 않게 배워두었다.

내가 13살에 잡아든 해였다. 그때는 일본놈 세상이라 학교에 가서 조선말 한마디만 해도 벌금을 해야 했는데 나는 그때까지 일어를 한마디도 번질줄 몰랐다. 아버지는 할수 없어 풋면목이 있는 친구를 통해 선생님 한분을 모셨는데 반년만에 나는 일어를 류창하게 할수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나를 보고 《애야, 저 리화동에 광진소학교가 있는

需要全本请访问 www.ertongbook.com

데 다니겠냐? 》하고 물었다.

나는 좋아라고 인차 《다니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

옆에서 듣던 할아버지가 나에게 《리화동의 광진소학교는 여기서 10리나 떨어져있는데 다닐만 하겠냐?》하고 근심스레 말씀하셨다.

《예, 다닐만 합니다.》

《그럼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해 잘 듣거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나는 이튿날부터 광진소학교에 다녔다. 나는 반년간에 자습을 끝내고 학교에 입학하였고 인차 3학년으로 뛰여올라갔다. 일제의 철제밑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유지인사들은 그 당시 세린하향 리화동에다 광진소학교를 세우고 우리 조선글을 가르치고있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 그 먼길을 탈탈거리고 오가면서도 불평없이 잘 견뎌냈다. 나의 성적은 시험마다 최우등이였다.

너무도 피곤해 집에 돌아와 등잔불아래서 숙제를 하다가 끄덕끄덕 졸때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군 했다. 폭설이 쏟아지고 큰비가 퍼붓는 날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가 아까와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

(이러다가는 이 산골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못할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13살나는 나를 계속 공부시키기 위해 솔가해 룡정으로 이사했다. 참말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공부시키려고 세번이나 이사를 한 이야기와 흡사했다.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아버지는 룡정시내에서 남의 집 구들을 뜯어고치기도 하고 삯짐도 멨으며 나중에는 목수일을 배워 남의 집 문짝도 짜주면서 돈을 벌어 월사금을 대였다. 나는 13살에 룡정 영신소학교 3학년에 붙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엄한 교육을 받은 덕분에 룡정 영신소학교로 전학해와서도 나의 성적은 줄곧 앞자리를 차지하였고 시험마다 최우등이였다.

영신중학교는 내가 1학년에 다닐 때에는 조선사람들의 학교였는데 후에는 일본 노예교육기지로 돼버렸다. 일본놈들의 노예교육판에서도 나는 해마다 최우등을 했고 학교에서 총학생대 대장에 동창회 책임을 맡았으며 사회활동에도 장끼를 보였다.

나는 월사금 2원을 내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한적도 여러번 있었다. 그때 쌀 한말에 10전이였으니 막일을 하는 아버지에게 월사금 2원이란 그야말로 천문수자였다. 나는 1등의 성적으로 1937년 12월에 영신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때는 벌써 동갑인 조분단과 결혼하여 아들 정기호를 본 뒤였다.

하루는 학급 담임교원인 장내원선생이 찾아와 《규창이, 일본류학시험을 한번 쳐보오. 동무는 성적도 좋으니 꼭 류학갈수 있을거요.》 라고 하였다.

나는 묵묵히 앉아 듣다가 《내가 류학가면 집에서 어떻게 뒤시중을 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선생님은 《근심마오. 시험에 합격만 되면 달마다 조학금을 70원씩 준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럼 시험쳐보겠습니다.》

나는 연길에 가서 시험을 보았는데 순조롭게 합격되였다. 그런데 룡정으로부터 내가 붙은 일본 후꾸오까고등학교에까지 가려면 차비 20원이 있어야 하였다. 아침 쌀을 안치고 나면 저녁솥에 안칠 쌀근심을 하는 형편에 어디 가서 돈 20원을 구해온단말인가. 게다가 아버지는 일본에 가면 돌아오지 않을가봐 걱정하고있었다. 결국 나의 일본류학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나는 너무도 아쉬워 련 며칠이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달후 장내원선생님이 또 찾아왔다.

《규창이, 신경(장춘)의과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데 내 로임에서 월사금을 대줄테니 시험쳐보오.》

그 말에 나는 눈앞이 환해졌다. 중학교를 다닐 때 사촌형님 둘이 장질부사에 걸려 병원에도 못가보고 죽은 일이 있은 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의사로 되겠다는 꿈을 모름지기 품어오던 나였다. 때마침 잘됐다고 생각한 나는 곧 시험을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학통지서가 날아왔다. 나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허나 달마다 학비 10원을 내야 한다는 대목을 보고는 부풀었던 꿈을 접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아버지가 《얘야. 너를 꼭 보내줄테니 근심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아버지는 국내 학교이니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셨던것이다.

1938년 4월에 나는 아버지가 마련해준 15원을 가지고 신경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첫학기에는 달마다 15원 돈이 제때에 오지 못해 곤난이 막심하였다. 막일을 해서 그날그날 연명해가는 가족들은 또 오죽했으랴.

그때 신경의과대학에서는 일본인교원들이 교과서도 없이 일본어로 강의하여 학생들은 시간에 강의를 베껴보면서 공부해야 했다. 그런데 한족 동학들은 일어수준이 차해 제대로 베끼지 못해 늘 나의 필기장을 빌려 베끼였다. 맘씨 좋은 그들은 책을 베끼고 난 뒤면 돈 1~2원을 내 손에 쥐여주군 하였다. 덕분에 나는 그럭저럭 한학기 공부를 마치였다. 남들은 참고서를 사서 보고 전차나 인력거를 타고 다녔지만 나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숙사로부터 학교까지는 15리 남짓하였는데 나는 매일 도보로 다녔다.

여름방학이면 다른 학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차비가 없어서 집으로 가지 못하였다. 그때 장춘에서 집까지의 차비는 8원 1전이였다. 남들이 갈 때 나는 막연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집에 있는 부모처자를 생각하군 했다 . 그때 경찰 월로임이 8원이였으니 어찌 엄두를 내랴.

고생끝에 락이라고 심한 경제난에 모대기면서도 첫학기에 학습성적이 뛰여나 나는 두번째 학기부터 괴뢰만주국 국비생이 되여 달마다 50원씩 타면서 공부하게 되였다. 나는 전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고 참고서도 샀으며 방학에는 집에 돌아가 부모처자와 함께 지냈다.

1942년 12월에 나는 최우등으로 신경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국비생은 국가의 통일배치에 순응해야 했지만 나는 일본선생과 제기하여 국자가(지금의 연길)에 있는 간도성 제1성립병원에 왔다. 한달동안 근무하

다가 조선족의사들이 많은 룡정개척의학원 부속병원 제2성립병원에 전근되여 《8.15》해방전까지 룡정개척의학원 강사, 부속병원 내과의사로 있었다.

의학학교 창설

드디여 《8.15》광복이 왔다. 장장 수십년을 이 땅에 둥지틀고있던 일제를 몰아내고 드디여 허리를 펴고 살게 될 날이 온것이다. 그때 내 나이는 28살이였다.

하루는 룡정개척의학원의 조선족학생 10여명이 나를 찾아왔다.

《정선생님, 우리 학생회에서 학교를 보위하고 의학공부를 끝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애원에 나는 감동되여 차마 거절할수가 없었다 .

《그렇게 합시다, 학교를 계속 꾸리도록 련계해보지요.》

결국 원 룡정일본령사관 자리(지금 룡정시정부청사)에 있던 룡정개척의학원은 동란속에서도 보존되였다. 학생들이 나의 포치에 따라 일본놈들이 버린 총을 주어들고 학교건물을 지켰던것이다.

나는 조선족의사를 많이 길러내려고 당시 민주대동맹 교육위원회에 찾아가 룡정의과대학을 세울 의향을 내비쳤다.

그러자 원 룡정 동흥중학교 교장이였던 림계학이라는 책임자는 쾌히 승낙해주었다 .

《아주 좋은 생각이요. 우리도 있는 힘껏 도와주겠소.》

나는 학생회와 손잡고 주야로 룡정의과대학창설에 발벗고 나섰다. 20여일간의 준비를 거쳐 1945년 9월 10일에 마침내 룡정의과대학 간판을 원 룡정개척의학원 자리에 내걸고 정식으로 개학식을 열었다. 초대 학장은 김강찬선생님이였다.

룡정의과대학은 경제곤난이 막심하였다. 교원들의 로임은 고사하고 겨울이 닥쳐와도 겨울을 날 석탄이 없었다.

나는 토비숙청에 나선 화룡현 6환 환장 박근식을 찾아갔다. 석탄을

해결해달라는 말에 박근식은 속수무책으로 긴 한숨만 내쉬였다.

《지금 화룡의 탄광에 거의다 토비들이 둥지를 틀고 들어앉아있어서 석탄을 내오는수가 없소.》

뒤이어 박근식탄장은《룡문교 나무다리가 큰물에 밀려가고 나무기둥만 남아있는데 그걸 뽑아 때면 한해 겨울은 날수 있지 않겠소.》하고 덧붙여 말하였다 .

그 말에 나는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 학교로 돌아왔다.

나는 인차 120여명 학생을 동원하여 차디찬 해란강에 뛰여들어가 다리기둥을 몽땅 뽑아서 학교에 날라다 무져놓았다. 그것으로 그해 겨울을 그럭저럭 때웠다. 약품은 일본군의창고에서 주어다 썼다.

나는 막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사생들을 데리고 우두예방주사약을 만들어 당시 연변에서 늘어나는 콜레라환자와 천연두환자를 적극 치료하였다. 그리고 연변전원공서의 포치대로 석달동안 안도에 있는 해방군 양탄장의 보건사업과 보위사업을 맡아보았다.

나는 교육경비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인민대중의 대폭적인 경제협조를 받기 위해 연변전원공서에 가서 토론을 거치고 룡정의과대학을 대담하게 연변공립의과대학으로 고쳤다. 허나 갓 일떠선 정부나 조선족인민들도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어서 학교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았다.

나는 선생님들과 함께 당시 국민당군을 피해 연길로 자리를 옮긴 길림성정부 판사처를 찾아가 토론하고 연변공립의과대학을 길림성의과대학으로 개칭하였다. 허나 성정부에서도 곤경을 풀지 못했다.

1947년, 중공중앙에서 해방전쟁에 군의가 많이 수요되므로 길림성의과대학을 동북군정대학 룡정의과대학과 합병하라는 통지를 보내오자 두 대학교가 합하여 군정대학 의학원으로 개칭하였다. 그때부터 교원들은 로임으로 군복 한벌에 수수쌀 한마대씩 탔다. 뒤근심이 없어진 교원들은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위생부에서 군의양성을 위하여 군정대학 의학원을 흑룡강성 홍산산골에 자리잡은 중국의과대학 제1분교(내과학부)로 개칭한후부

터는 모든 공급을 제대로 받게 되였다.

1947년 9월말의 추석 전날이였다. 그날이 또 생일을 이틀 앞둔 날이였기때문에 반세기 훨씬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국민당군이 교하에까지 쳐나오자 아버지는 일가를 데리고 조선에 나가려고 하였다.

《규창아, 너도 집식구가 다 나갈 때 같이 가자.》

아버지는 벌써 이 말을 몇번이나 곱씹어 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부모처자를 따라가고싶은 맘이 불붙듯했다. 그러나 국내해방전쟁에 급히 군의가 수요될 때여서 중국의과대학 제1분교의 주요책임을 맡은 나는 학교와 학생들을 뿌리치고 갈수 없었다.

나를 설복시키지 못한 가족들은 마침내 조선을 바라고 떠나갔다. 떠나는 날 아버지는 나를 불러놓고 목멘 어조로 신신당부를 하시였다.

《규창아, 잊지 말구 적당한 때에 조선에 나오거라. 네가 와야 우리 온 집안 식구는 살수 있다.》

《예, 배워주던 애들을 졸업시키고 꼭 나가겠습니다.》나는 궁여지책으로 대답하였다.

나는 자동차에 련달아 오르는 어머니와 녀동생 그리고 제수와 조카애들을 일일이 바래주었다. 나중에 안해와 아들 정기호를 마주하고보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것 같았다. 친인과의 생사리별이란 이런것이구나. 그때에야 나는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껴보았다. 자동차에 훌쩍 뛰여올라 그들과 함께 가고싶었다. 그러나 내 손을 바라는 학교와 내 가르침을 바라는 학생들을 저버릴수는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경박호발전소의 전기를 끌어내는 전기줄을 가설하다가 전선대에서 떨어져 륵막염, 폐결핵, 장결핵으로 두해나 시름시름 앓다가 1946년에 죽어서 아버지는 나에게 유일한 희망을 두고있었다.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 한스러움에 목이 꺽 메였다.

나는 삼합에 가서 바래지 못하고 룡정에서 바래였다. 두만강까지 따라가면 차마 헤여지기 어려워 따라가게 될가봐 나는 자기절로 내자신의 참을성의 한계를 조절할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리별이 국경선을 사이

需要全本请访问 www.ertongbook.com